

에너지융합대학원 김윤수 교수, 재생에너지 분야 세계 저명 저널 편집위원 선임

- 내년부터 IEEE Transactions on Sustainable Energy 심사자 선정 및 논문 평가 등 활동



▲ 지스트 김윤수 교수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에너지융합대학원 김윤수 교수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「IEEE Transactions on Sustainable Energy(TSTE)」*의 편집위원에 선임됐다.

2010년부터 발간된 TSTE는 전자공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전기전자공학회(IEEE,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) 소속의 전력 및 에너지 부문 학회인 '파워 앤 에너지 소사이어티(Power & Energy Society, PES)'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트랜잭션(transactions)* 저널 중 하나로,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전력망 연계, 배터리 및 저장장치, 열병합발전, 에너지효율, 연료전지, 태양광, 풍력, 조력 및 파력 등 폭넓은 주제의 최상위급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.

* IEEE Transactions on Sustainable Energy(TSTE): Journal Citation Reports(JCR)에 의하면 TSTE의 가장 최근 Journal Impact Factor(2021)는 8.310이며 이는 세계 상위 10% 수준으로, 공학(Engineering) 및 전기·전자(Electrical & Electronic) 부문 276개 저널 중 27위(90.40%)에 올라 있다.

* IEEE에서 출판하는 트랜잭션 저널로는 Smart Grid, Sustainable Energy, Power Systems 등이 있다. PES는 1960년대에 생겨난 학회이며, IEEE의 39개 학회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학회다.

김 교수는 **2023년부터 2년 동안**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, 최적화 기법, 재생에너지 제어, 전력망 설계 분야의 편집위원으로서 논문 게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**심사자 선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** 예정이다.

김윤수 교수는 2016년 2월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지스트 융합기술원 에너지융합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.

김윤수 교수는 “전력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없이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일 수 없다”며 “세계적인 저널의 편집위원으로서 **관련 분야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식의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**”고 말했다.